

사람이 희망입니다.

# KRIVET Issue Brief

2017

133호

발행인 이용순 | 발행일 2017년 10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참여 실태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20% 이상이 후진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未)참여자의 경우에도 60% 이상이 향후 학위 취득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후진학 참여 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2013년도 및 2014년도 졸업생 각각 52.0%, 38.4%)이 가장 많고, 후진학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는 평일 야간의 비율(2013년도 및 2014년도 졸업생 각각 44.4%, 38.1%)이 가장 높음.
- 재학 중인 대학의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학 전공과 현재 직무 간의 일치도는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후진학 참여자 중 소속 기업으로부터 후진학 참여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비율은 40% 미만이며, 대학 학위 취득이 임금 인상이나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임(2013년도 및 2014년도 졸업생 각각 44.8%, 53.6%).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참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산업분야 전문기술 인력으로서의 성장 경로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2008년 이후 추진된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은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데 도입 목적이 있음.
-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취업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중등단계의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나, 핵심적인 도입 목적인 '선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마이스터로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참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 후 성장 경로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2016)』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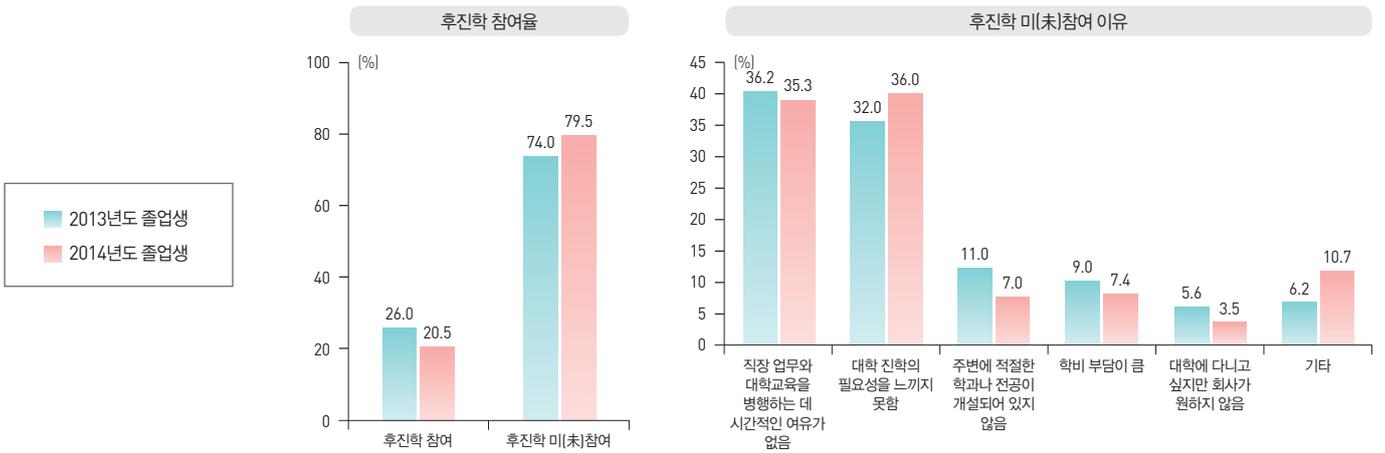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3년도 및 2014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2016)』 과제의 후진학 영역 조사 결과
- 분석 대상: 2013년도 및 2014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013년 졸업생 630명, 2014년 졸업생 799명임. 이 중 조사 당시 경제활동 상태가 '재직 중'인 것으로 응답한 2013년도 졸업생 481명 및 2014년도 졸업생 609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함.



02 후진학 참여 현황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20% 이상이 후진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및 2014년도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20% 이상(2013년도 26.0%, 2014년도 20.5%)이 후진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후진학 미참여자의 경우,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직장 업무와 대학교육을 병행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2013년도 졸업생 36.2%, 2014년도 졸업생 35.3%)과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2013년도 졸업생 32.0%, 2014년도 졸업생 36.0%)이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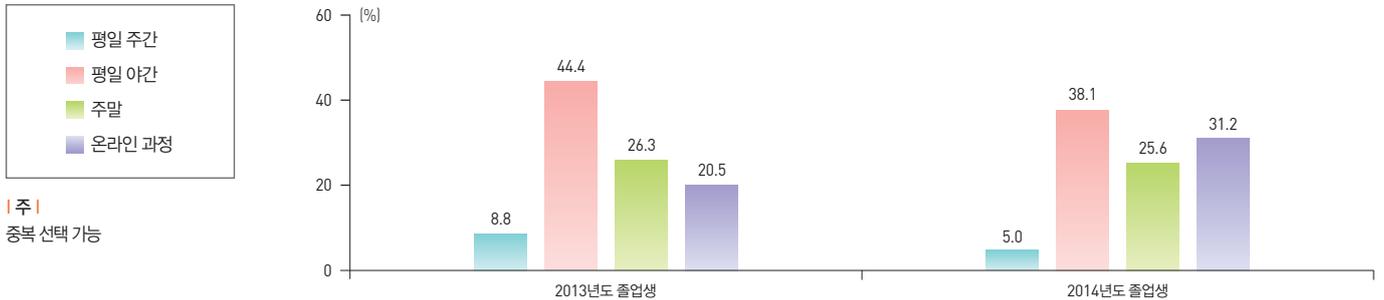
[그림 1]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참여율 및 미(未)참여 이유

| 후진학 참여 유형으로는 일반 4년제 대학 및 평일 야간 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

- 후진학 참여자들의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 중인 대학 유형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2013년도 52.0%, 2014년도 38.4%)이 가장 많음.
  - 2013년도와 2014년도 후진학 참여자의 현황을 비교하면, 대학 유형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52.0% → 38.4%)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방송통신대학(6.4% → 16.8%)의 비중은 늘어남.
- 참여 중인 후진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평일 야간(2013년도 44.4%, 2014년도 38.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하면, 평일 야간(44.4% → 38.1%)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과정(20.5% → 31.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남.
  -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후진학 참여 유형과 관련하여 방송이나 인터넷 기반의 원격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참여 중인 후진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주 | 중복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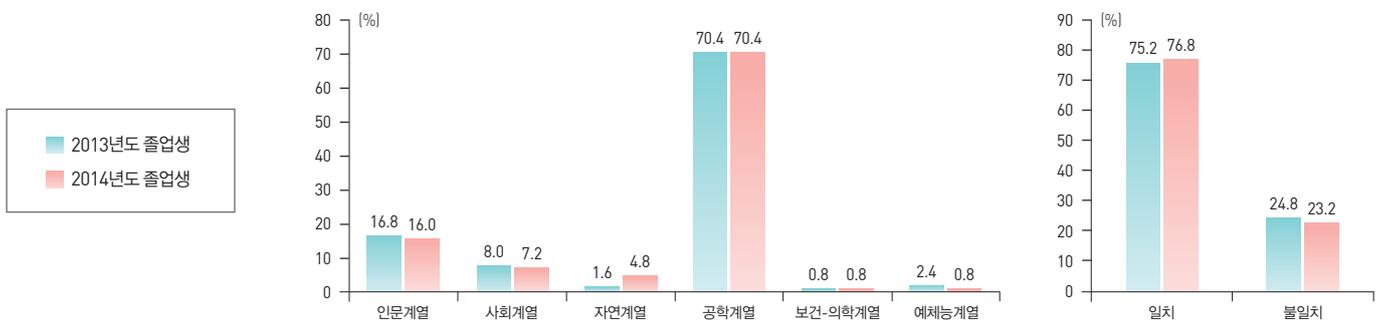
[그림 2] 후진학 참여자의 대학 유형 및 후진학 프로그램 운영 방식

대학 전공계열로는 공학계열이 가장 많은 가운데 현재 직무와의 전공 일치도는 75%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후진학 참여자들의 재학 중인 대학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70%로 가장 많으며, 인문·사회계열의 참여 비중 역시 23% 이상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대학 전공계열이 일치한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75% 이상임.
  - 높은 공학계열 비중과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무 일치도는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고교 재학 시 전공이나 현재 소속 기업에서의 담당 직무가 제조업 또는 공학 분야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 후진학 참여자의 23% 이상이 인문·사회계열로 후진학 경로를 선택한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신의 진로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됨.

대학 전공계열

직무·전공 일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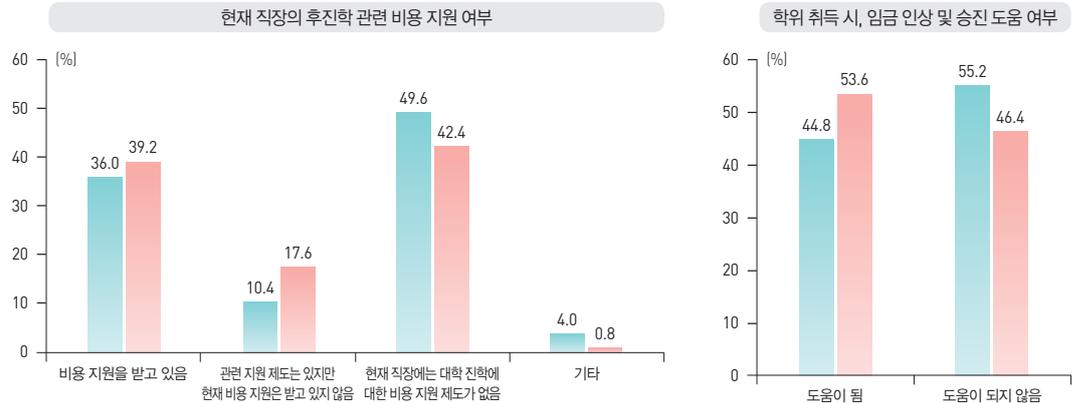


[그림 3] 후진학 참여자의 대학 전공계열 및 직무-전공 일치도

### 03 후진학 참여 여건 및 미(未)참여자의 향후 학위 취득 계획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참여 관련 비용 지원 및 대학 학위 취득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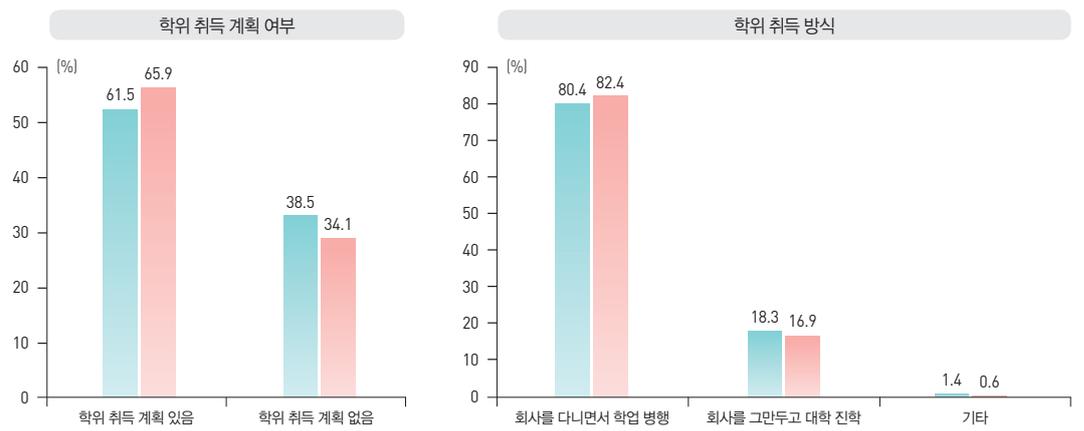
- 후진학 참여자들에게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후진학 참여와 관련한 비용 지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및 2014년도 후진학 참여 졸업생의 49.6%와 42.4%가 현재 직장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비용 지원 제도가 없다고 응답함.
  - 또한 관련 지원 제도는 있으나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10.4%, 17.6%로 나타남.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들이 후진학 미참여 이유와 관련하여 비용 문제를 주된 이유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소속 기업 내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을 지원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후진학에 참여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2013년도 졸업생 55.2%, 2014년도 졸업생 46.4%)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후진학 참여 여건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중 후진학 미(未)참여자의 60% 이상이 향후 학위 취득 계획이 있음.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중 후진학 미(未)참여자의 60% 이상이 향후 학위 취득 계획이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5] 미(未)참여자의 향후 학위 취득 계획 및 취득 방식

04 시사점

-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20% 이상이 후진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未)참여자의 60% 이상이 향후 학위 취득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계속교육 참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마이스터고 정책 목표가 국가·지역 전략산업분야에서 핵심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래 마이스터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속교육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후진학 미(未)참여의 이유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주된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나,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 학위 취득에 따른 기업 내 인사제도 상의 보상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후진학 참여 시, 평일 야간에 개설된 수업의 참여 비율이 높고, 방송이나 인터넷 기반의 원격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이론과목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실습과목은 주말 혹은 야간에 개설하는 등의 재직자특별전형에 적합한 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고졸 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김성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